

甲骨文 ‘單’의 형체 기원 고찰

朴錫弘*

◁ 목 차 ▷

- I. 緒言
 - II. 선행 연구의 검토
 - III. ‘單’의 형체 분석
 - IV. 사냥돌과 ‘單’
 - 1. 사냥돌의 형태와 속성
 - 2. 사냥돌과 갑골문 ‘單’의 形·義 연관성
 - V. ‘單’의 형체 변화
 - VI. 사냥돌 기원설의 적용
 - 1. 갑골문 형체 기원 연구 측면
 - 2. 청동기 族徽의 形·義 분석 측면
 - 3. 고대중국의 사냥문화 기술 측면
 - VII. 結語
-

I. 緒言

고대사회에서의 사냥은 고대인이 행한 생산 활동의 하나로서 식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군사훈련과 같이 개인 및 집단의 생존 도모, 또 이를 통한 사회 조직의 유지·확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따라서 사냥은 고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요소 중 하나이다. 사냥 문화의 연구와 기술에 있어서 獵具, 즉 사냥에 사용되었던 사냥구에 대한 연구는 도구적 인간(Homo faber)의 문화사 기술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인류의 가장 일반적인 사냥구로는 창·활 등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돌을 이용한 사냥구를 제작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냥 전통은 구석기시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줄곧 세계 각지에서 전승되어 왔다. 특히 ‘사냥돌

* 東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Bola Stone)'은 석제 사냥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 실물이 대량 발굴된 바 있으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¹⁾

사냥돌 사용에 관한 문화기억(Cultural Memory)은²⁾ 특히 갑골문 '單'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單'의 형체 기원에 관한 문자학 및 문화학적 고찰은 '單'과 이를 편방으로 취한 문자들의 形·義 연구와 더불어 고대 중국의 사냥문화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얻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고문자 학계에서는 '單'의 형체 기원에 관해 여전히 이설이 분분하다. 이는 고대 중국의 사냥문화에 대한 고문자 연구자들의 인식이 폭넓지 않았고, 무엇보다 문헌 및 비서사성 자료를 통한 사냥문화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이 충분치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본고는 '單'과 이를 편방으로 취한 문자의 형체 분석을 근간으로 하고, 또 고고학에서 발굴한 실물 및 민족지 자료를 참조하여 '單'의 형체가 사냥돌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고는 '單'의 형체 기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타의 문자 분석에 적용해봄으로써 해당 문자의 形·義 기원 탐구에 또 다른 단서를 제시해 보았다. 이밖에도 '單'의 형체에 투영된 고대 중국의 사냥돌 사냥문화와 관련한 문화기억을 재구성해봄으로써 고대 중국의 사냥문화 기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선행 연구의 검토

'單'의 형체 기원과 관련해서는 '單'을 '제터(또는 祭壇)', '취락명(씨족명)', '장대 모양의 사냥구(무기)', '사냥돌' 등에서 유래하였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먼저 '單'을 제단으로 보는 설에서는 '單'을 '墀'·'臺' 등의 원래 글자로 고석하였다.³⁾ 또 '취락명'으로 보는 설은 '單'이 '東'·'西'·'南'·'北' 등 방위사와 결합하는 卜辭 중 용례에 근거해 '單'이 지명이나 사회조직으로서의 취락명과 관련이 있을 것

1) 본고 제4장 참조.

2) 문화기억(王霄冰 2007)은 현재 또는 어느 특정 시점에 실제 존재하거나 행해지지 않는 일종의 기억처럼 인류의 생활 근거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의 흔적을 의미한다. 문화기억은 인간의 다양한 儀式이나 행위 양식, 그리고 문헌·문자 등에 내포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의 한자는 고대 중국의 문화기억의 보고라 할 수 있다.

3) 각각 胡厚宣과 于省吾가 주장한 설이다(于省吾(1996:3072) 참조).

이라는 주장이다(俞偉超 1988).⁴⁾ 그런데 이 두 설 모두는 ‘單’의 造字本義보다는 복사 중의 의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單’이 ‘제터’·‘취락명’과 형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單’을 장대 모양의 사냥구로 추정한 설에서는 ‘單’을 공격용 도구를 장착한 장대 형태의 사냥구의 상형으로 보았다(徐中舒 1980, 白玉崢 1969:3673, 吳其昌 1960:314 등). 이 설은 앞 설들에 비해 형체 분석에 근거하여 ‘單’의 형체 기원 규명에 보다 역점을 둔 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설을 주장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單’이 무기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대사회에서의 사냥구는 무기의 기원이 되는(李放 1991) 예가 빈번하고, 또 사냥이 군사훈련의 일환인 경우가 많은 등, 사냥과 군사행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주장은 일정 정도 타당하다 하겠다. 이 설을 주장하는 일부의 연구자는 더 나아가 갑골문 ‘單’을 무기의 일종인 ‘干’ 또는 ‘盾’(李孝定 1970a:0683~0686)과 형체·의미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자라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單’은 ‘干’ 또는 ‘盾’의 일반적 형상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으므로, 이 설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자료와 실증적 유물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單’을 사냥돌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은 Cecilia(2002:112)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기에서는 종래의 중국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중국 및 세계 여러 지역의 사냥돌 관련 실물자료와 문화자료에 주의하여 ‘單’의 형체 기원에 관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할 수 있다. 다만 ‘單’ 및 관련 문자들에 대한 면밀한 문자·언어학적 분석이 불충분하고, 또한 문자의 형체·의미와 사냥돌의 형태·속성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





아래에서는 ‘單’의 의미·음운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⁵⁾ 이것의 형체 기원 규명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설들과, 또 문자와 실증 유물 자료 간 연관 관계 입증에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설들에 대해 고고학·문화학·민족지 자료에 주의함과 동시에 문자 분석상의 미흡함을 보충함으로써, ‘單’의 형체 기원 연구에 참고할만한 또 하나의 가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4) 于省吾(1996)에서 재인용.



5) 예를 들어 李孝定(1970b)은 ‘盾’과 ‘單’은 雙聲, ‘單’과 ‘干’은 疊韻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單’을 ‘盾’으로 해석한 바 있다.

Ⅲ. ‘單’의 형체 분석

갑골문 ‘單’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①A·B·C·D 등 네 가지 대표적 형체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 중 ①A는 ‘Y’로 摹寫할 수 있겠는데⁶⁾, 나머지 ①B·C·D에도 모두 ‘Y’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Y’는 ‘單’으로 형상화 된 원래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를 반영한 최소 필획의 ‘기본형체’임을 알 수 있다.

①	A	B	C	D
單	 (乙4680反)	 (粹73)	 (簠人14)	 (乙1049)

‘Y’를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Y’과 ‘oo’이 결합된 형체로 분석하였다(徐中舒 1980, 白玉崙 1969:3673). 또 ‘Y’ 중의 ‘Y’는 끝이 갈라진 장대로 보고, ‘oo’은 ‘Y’상단 양 끝에 묶인 石刀(伍仕謙 1996)⁷⁾, 날카로운 날을 가진 무기(白玉崙 1969:3673), 예리한 石器(徐中舒 1980) 등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분석에 근거하자면 기존 연구에서는 ‘單’은 대체로 끝이 갈라진 장대에 무기 따위를 장착한 공격용 도구인 것이다. 그런데 ‘單’이 끝이 갈라진 장대 형태의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한 단서는 다음의 갑골문 ‘揮’에서 발견된다.

②	A	B
揮	 (甲2433)	 (甲2772)

6) 姚孝遂(1989)에서는 갑골문 ‘單’의 가장 전형적인 형체들을 ‘Y’·‘Y’·‘Y’ 등으로 묘사하였는데, 본고에서 사용한 ‘單’의 기본형체 ‘Y’와 이것의 각종 이체 자형들을 구성하는 ‘Y’·‘j’·‘oo’·‘Y’·‘oo’·‘oo’ 등의 부호들은 바로 여기에서 취하였다. 다만 본고의 기술상 원래의 갑골문 및 족휘 중의 형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자형의 전체 혹은 일부를 그대로 나타내었다.

7) 于省吾(1996)에서 재인용.

갑골문 ‘揮’ 중 ②A는 ‘𠂇’과 ‘𠂇(又=手)’가 상하로 결합된 구조이다. 이 중 ‘𠂇’은 앞 ‘單’의 ①A뿐만 아니라 ①B·C·D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𠂇’과 형체가 같다. 따라서 이것이 ‘單’이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②B 중 상단의 ‘𠂇’은 ②A의 ‘𠂇’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형체 윤곽이 유사하고 손을 나타낸 ‘𠂇’의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②B 역시 ②A와 마찬가지로 ‘單’을 편방으로 취한 ‘揮’임을 알 수 있다.

②A와 ②B는 모두 손으로 ‘單’을 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문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單’으로 형상화 된 원래 사물의 형태와 사용 방식에 관해 주의할만한 두 가지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갑골문 ‘揮’에는 ‘單’이 ‘끝이 갈라진 장대’가 아닐 가능성을 가진 형체를 포함하고 있다. ②B가 바로 그 예로서, 손을 나타낸 ‘𠂇’의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분석에서처럼 ‘𠂇’과 ‘𠂇’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𠂇’에 ‘𠂇’이 결합된 형체이며, 이 중의 ‘𠂇’은 ‘끝이 갈라진 장대’의 모습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와 유사한 예는 다른 문자에서 편방으로 쓰인 ‘單’에서도 발견된다.⁸⁾ 이러한 형체는 ‘𠂇’과 ‘𠂇’이 결합한 다른 ‘單’의 형체에 비해 소수이긴 하지만, ‘單’이 ‘끝이 갈라진 장대’가 아닐 수 있는 일정한 가능성을 가진다 하겠다.

둘째, 갑골문 ‘揮’은 ‘單’의 특수한 운용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고대 한자 중 ‘𠂇’ (또는 ‘𠂇’)는 손을 의미하는 문자로서, 갑골문 ‘揮’ 중에서의 ‘𠂇’·‘𠂇’ 역시 ‘𠂇’을 운용함에 있어 손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표시한다.⁹⁾ 그런데 ‘揮’ 중 ‘𠂇’·‘𠂇’과 ‘𠂇’·‘𠂇’의 결합상 상호 위치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𠂇’·‘𠂇’가 모두 ‘𠂇’·‘𠂇’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②A에서의 ‘𠂇’은 ‘𠂇’의 말단부에 겨우 상접한 형태이다. 고대 한자 중에서 ‘𠂇’·‘𠂇’을 의부로 취한 문자들은 이것의 위치가 해당 문자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위치는 제각각이다.¹⁰⁾

8) 갑골문 ‘獸’ 중 ‘𠂇’(前4·1·1)가 그 예이다.

9) ‘揮’은 《說文》에서 ‘손에 들다’ 또는 ‘손으로 들어 올리다’ 등으로 풀이하였다(《說文·手部》: “揮, 提持也, 從手, 單聲. 讀若行遲驛驛.”). ‘揮’에 대한 《說文》의 이와 같은 풀이는 갑골문 ‘揮’의 조자본의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10) 예를 들어, ‘𠂇’·‘𠂇’·‘𠂇’ 등은 각각 햇불·곡식(나라)·붓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문자들이다. 여기에서는 손의 위치가 모두 일정치 않은데, 그 이유는 이들 문자들 중의 ‘손’은 손으로 행하는 동작 그 자체에 표의 중심이 있을 뿐, ‘손’의 위치를 특지함으로써 별도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다른 문자와의 형체 및 의미 변별을 위한 조자 의

그렇지만 ‘揮’에서의 ‘𠄎’·‘𠄏’는 ‘𠄐’·‘𠄑’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𠄎’·‘𠄏’의 위치를 특지함으로써 ‘揮’ 중의 ‘單’이 여타의 도구와는 다른 별도의 방식으로 운용되는 도구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造字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만약 ‘𠄐’·‘𠄑’ 등이 장대 모양의 도구라면, 이것의 사용에 있어 손의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파지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앞의 표 중 ②A·B처럼 ‘𠄎’·‘𠄏’가 ‘𠄐’·‘𠄑’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찌르거나 휘두르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근거리용 도구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전술의 두 가지 단서에 근거하자면 ‘單’은 ‘V’의 형태를 띠는 원거리용 도구로 추정할 수 있다. 원거리용 도구는 손으로 직접 투척하거나 발사를 위한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것¹¹⁾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렇지만 ②A·B는 단지 ‘𠄐’·‘𠄑’과 ‘𠄎’·‘𠄏’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V’이 별도의 보조 장치 없이 직접 손에 의해 투척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손으로 투척할 수 있는 도구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창 역시 투척의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창의 정확한 투척과 거리 및 방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창대 끝부분이 아닌 중간 지점 혹은 창날에 근접한 부분을 잡기 마련이다. 그러나 ②A·B에서의 ‘𠄎’·‘𠄏’는 모두 ‘𠄐’·‘𠄑’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문자들이 창의 일반적 사용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¹²⁾ 그러므로 ‘單’은 화살이나 창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 별도의 투척 도구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單’이 투척의 방식으로 운용되는 도구라면 ‘單’을 ‘투척’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이를 알 수 있다면 ‘單’의 형태와 속성을 구체화 하고, 이로써 이 도구가 과연 무엇인지 추정함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단서는 갑골문 ‘𠄒’에서 찾을 수 있다.

도는 없기 때문이다.

空	 (存上22)	 (前4·28·7)	 (前4·29·2)
乘	 (珠465)	 (珠572)	 (續6·23·19)
聿	 (撫續265)	 (後下38·1)	 (京津3091)

11) 화살은 ‘射(射)’의 갑골문 ‘𠄒’(京津4490)·‘𠄓’(甲555) 등과 같이 화살을 멀리 보내기 위한 ‘활’을 나타낸 부호와 결합하고 있다.

12) 이밖에도 고대 무기 중에서는 ‘V’의 형태를 취한 창은 발견된 바 없다.

③	A	B	C	D	E
獸					
	(京津4410)	(粹189)	(甲3599)	(鐵36·3)	(前69)

갑골문 ‘獸’는 ‘單’과 ‘犴(犬)’이 결합된 문자이다. 이 중 ‘犴’은 사냥을 돕는 사냥개 따위의 동물로 여기기도 한다(羅振玉 1915). 그러나 이와 동일한 구조의 금문 및 청동기 族徽 중에서는 개 이외에도 들소(兕)·무소(犀)·호랑이(虎)·이리(狼) 등을 상형한 다양한 부호들이 ‘單’과 결합하고 있다(吳其昌1960:317). 또 갑골문 ‘獸’ 중 상당수가 위 ③A·B·D처럼 ‘單’과 ‘犴’이 상접하거나 심지어는 ③E와 같이 마치 길짐승의 다리를 ‘單’으로써 묶고 있는 듯한 형체를 띠고 있다. 따라서 ‘獸’ 중의 ‘犴’은 사냥을 돕는 짐승이 아니라, ‘單’으로 형상화 된 사냥구의 사용대상 또는 목표물이며, 이로써 ‘單’은 주로 길짐승을 대상으로 하는 포획도구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單’은 ‘單’·‘揮’·‘獸’ 중의 여러 형체를 통해 해당 사냥구의 대략적인 형체를 구현하였고, 또 이 형체 중에 이 사냥구의 운용 방식과 그 대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근거하자면 ‘單’은 장대와는 다른 형태로서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길짐승을 포획하기 위해 투척의 방식으로 운용하였던 사냥구를 상형한 문자인 것이다.

IV. 사냥돌과 ‘單’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자료들 중 갑골문 ‘單’의 형체와 유사하고, 또 ‘單’으로 나타내어진 사냥구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길짐승 포획용 사냥구가 있는데, 바로 ‘사냥돌’이다.¹³⁾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사냥돌의 형태와 속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사냥돌과 ‘單’의 형·의와의 연관성 유무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13) 중국어에서는 ‘石球’라 하고, 영문으로는 ‘bola stone’외에도 ‘Spheroid’라 칭해지기도 한다.

1. 사냥돌의 형태와 속성

사냥돌은 단순히 자연 그대로의 돌이 아니라 돌을 떼어내는 가공 과정을 거쳐 공처럼 만든 ‘여러 면 석기(multi-face stone tool)’ 중 하나이다. ‘사냥추’·‘팔맷돌’로 칭해지기도 하는 이것은 인류가 사용하였던 가장 초기의 사냥구 중 하나로서, 최초에는 하나의 돌을 던지는 지극히 단순한 방식으로 운용되었지만(김광언 2007), 나중에는 짐승의 힘줄이나 식물의 줄기 따위로 만든 줄에 돌을 묶고(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그림1>), 이 줄을 다시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 한데 묶어 목표물을 향해 던짐으로써 사냥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고안되는 등 그 구조와 사용방식이 점차 발전되었다.

사냥돌은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기보다는 목표물의 다리를 향해 투척하여 움직임을 제어한 후 이를 포획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냥돌은 그 크기나 무게를 통해 볼 때 사용 대상이 주로 큰 짐승을 포획하기 위한 사냥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王爲桐 1996). 실제로 사냥돌과 함께 발견된 동물 뼈들 중 상당수가 야생말이나 털코뿔소·영양 등과 같이 덩치가 큰 짐승의 것이라는(安家媛 1991)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그림1〉 사냥돌 실물(좌)과¹⁴⁾ 사냥돌을 이용한 사냥의 가상도(우)¹⁵⁾

사냥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중국·한국 등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아메리카 등지에서도 구조와 쓰임새가 거의 동일한 것이 발굴된 바 있고, 사냥돌 사용 전통이 전승되어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냥에 실제 사용되기도 하였다(그림2).

14) 출처 :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소재, 직접 촬영)

15) 출처 : 석장리 박물관(www.sjnmuseum.go.kr)



〈그림2〉 근·현대 아메리카인의 사냥돌 사용 방식(재현)¹⁶⁾

중국의 경우에는 北京原인¹⁷⁾의 사냥돌 사용 흔적을 발견한 것 외에도, 山東·遼寧·陝西·河南·山西·安徽·江蘇·甘肅·江西·內蒙古·雲南 등 중국의 거의 전역에서 사냥돌이 발굴된 바 있다(陳哲英 2008).¹⁸⁾ 이중 黃河 유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냥돌이 발견되었는데(陳漢有·楊作龍 1999), 이는 사냥돌이 다른 사냥구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대문화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도구가 출현되었다 해서 이전부터 줄곧 사용되어 온 기존의 도구가 일시에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安家媛 1991). 사냥돌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신석기 이후의 농경사회에서도 사냥돌의 사용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¹⁹⁾, 商·周의 여러 유적뿐만 아니라(耀西·兆麟 1977) 殷墟婦好墓에서도 사냥돌이 발견된 바 있다(王爲桐 1996). 따라서 사냥돌은 선사시대부터 매우 오랜 세월동안 지역에 관계없이 인류의 心的 同一性에²⁰⁾ 기초한 가장

16) 출처 : www.flight-toys.com/bolas.htm

17) Homo Erectus 계열의 초기 인류 중 하나로 中國 北京 서남쪽 40km 지점의 河北省 房山縣의 周口店에서 발견되었다. 영문명은 Peking man이다.

18) 사냥돌의 존재와 사용 정황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巖刻畫와 같은 비서사성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날개의 사냥돌(좌), 또는 돌을 담은 주머니를 연결한(우) 사냥돌의 사용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출처 좌: 崔風祥(2005), 우: 崔風祥·崔星(2009)).



19) 초기 농경사회에서의 사냥돌의 사용은 전 시대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짐승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냥이 성행하였기 때문이다(耀西·兆麟 1977).

보편적 사냥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 사냥돌과 갑골문 ‘單’의 形·義 연관성

앞서 살펴본 사냥돌의 형태·속성이 ‘單’의 형태·의미와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면, ‘單’의 형태는 바로 이 사냥돌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사냥돌의 형태 및 사용방식과, 제Ⅲ장 중 갑골문 ‘揮’의 분석에 있어 제기한 ‘單’의 형태 및 사용 방식에 관한 두 가지 단서를 참조하여 사냥돌의 형태·속성과 갑골문 ‘單’의 형태·의미 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냥돌은 줄에 묶인 돌을 제외한 나머지의 외형적 윤곽에 근거해 ‘V형’과 ‘Y형’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르자면 앞 〈그림1〉에서의 사냥돌이 V형에 해당하고 〈그림2〉는 Y형에 해당한다. 또한 갑골문 ‘單’ 중 ②B는 V형, ①A·B·C·D와 ②A는 Y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V형과 Y형 중에서 V형은 사냥의 목적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갖춘 초기 사냥돌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Y형은 V형의 기초 위에서 ‘|’을 다시 추가하여 사냥돌의 원심력을 향상시킨 V형의 개량형으로서, 그 구조는 간단히 ‘V+|’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두 유형의 사냥돌과 연관 지어 갑골문 ‘單’의 형태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單’의 갑골문 ‘𠄎’은 ‘V’와 ‘|’로 세분할 수 있는데, ‘V’는 사냥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형상화 한 이 문자의 ‘핵심형태’이다. 즉, 이것은 사냥에 있어서 길짐승의 다리를 휘감음으로써 사냥의 목적인 포획을 최종적으로 실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의 상형이다.²⁰⁾ 또한 ‘V’는 두 개의 ‘ㅇ’과 하나의 ‘V’이 결합된 형태로서, 이 중 ‘ㅇ’은 줄 양쪽에 묶인 돌이며 ‘V’는 이 두 돌을 묶은 줄이 투척 직전 원심력에 의해 이와 같이 굽어졌음을 나타낸 것이다.

둘째, ‘V’ 아래의 ‘|’은 사냥돌을 묶은 줄 중간에 추가로 연결된 끈을 나타낸 것

20) 인류의 심적 동일성(Elementargedanken)은 보편적으로 유사한 인류의 기본적인 사고들(phyctic unity of mankind)을 가리키기 위해 Adolf Bastian이 제안한 개념으로서, 그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화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심적·정신적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겼다(Garbarino 1997:48).

21) 納西族 東巴文字 중의 ‘𠄎’은 사냥돌을 나타낸 문자로서(耀西·兆麟 1977), 이를 통해서도 사냥돌의 기본 구조가 끈 양쪽에 돌이 묶인 형태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다. ①A~D와 ②A 중 ‘ㄱ’ 아래의 ‘丨’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丨’은 사냥들의 원심력을 제고함으로써 ‘ㄱ’의 투척 속도와 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이다. 이 끈의 존재는 아메리카인의 사냥들 사용과 관련한 앞 〈그림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냥에 있어서는 이것의 끝부분을 한 손에 잡고 빙빙 돌리다가 적절한 시점에 목표물을 향해 투척한다. ②A에서 ‘ㄱ’의 맨 아랫부분에 ‘丨’가 위치한 것도 바로 원거리 투척을 위해 손으로 ‘丨’의 끝부분을 잡는 사냥들의 사용 방식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셋째, ‘ㄱ’ 하단의 ‘ㄷ(①A)’·‘ㄷ(①D)’·‘- (③C)’ 등의 부호는 ‘ㄱ’과 ‘丨’을 묶는다는 것을²²⁾ 상징적으로 나타낸 추상의 부호이거나, 혹은 ‘ㄱ’과 ‘丨’을 연결하는 매듭이나 일종의 고정 장치를 형상화 한 부호로 추정된다.

넷째, ②B 중의 ‘ㄷ’은 줄 한 쪽에만 돌이 묶인 여러 가닥의 사냥들을 한데 묶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추상의 부호이거나, 또한 이들을 묶은 매듭의 상형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보조 장치인 ‘丨’이 없는 형태의 사냥들로서, 중국 四川 지역의 민간에서 사용하였던 한 쪽에 돌이 묶인 사냥들 두 개를 연결한 사냥들이나(王爲桐 1996), 세 개의 줄에 묶인 사냥들을 다시 한꺼번에 묶은 남미 인디언들의 사냥들을 통해서도(耀西·兆麟 1977) 그 존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전술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냥들의 형태·속성과 갑골문 ‘單’의 형체·의미 간에는 충분한 연관성이 발견되고, 또한 실물의 존재와 사용 방식도 이들 간의 연관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單’의 형체는 중국 고대 사냥구의 일종인 사냥들에서 기원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單’의 형체 기원을 사냥들에서 찾아본 본고의 이 설은 ‘사냥들 기원설’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22) 기존 연구에서 ‘ㄷ’에 대해서 장대를 묶은 끈(伍仕謙, 于省吾(1996)에서 재인용), 포획물을 묶은 모습(白玉崢1969:3673), 갈라진 부위에 묶은 무거운 돌(徐中舒 1980) 등과 같이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것이 ‘묶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V. ‘單’의 형체 변화

하나의 문자가 여러 이체 자형을 가지는 현상은 고대 한자에서 매우 빈번하다. 문자의 다양한 이체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해당 문자 형체의 다양성에 대한 기술임과 동시에, 이체 자형들 중에 내포된 형체 변화 발전의 궤적을 찾아 해당 문자 형체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또 이를 통해 이체 자형 간의 계통성을²³⁾ 규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체 현상은 주로 필획 수의 변화와 필형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필획 수의 변화는 서사 공간의 제한과 같은 서사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편방으로 쓰이는 문자는 제한된 ‘方塊’의 공간 중 서사의 공간이 더욱 축소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필형의 변화는 곡선을 직선으로 변화시키는 平直化나 원·면 등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線條化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쓰기 쉬운 필형의 서사를 추구하는 서사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갑골문 ‘單’ 중에서는 줄에 묶인 돌을 나타낸 ‘㉹’과 ‘뭉다’라는 의미를 나타낸 ‘㉺’에서 앞의 두 요인에 의한 형체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에 ‘㉹’과 ‘㉺’의 각종 형체를 중심으로 ‘單’의 이체 자형들을 유형화하고 각 이체 자형들의 발생 원인 및 그 과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 핵심형체인 ‘㉹’ 중 ‘㉹’은 아래 표와 같이 원형(④A)·사각형(④B)·마름모(④C)·점(④D) 등의 형체이거나, 혹은 이들 모두가 생략되기도 한다(④E).

④	A	B	C	D	E
㉹					
	‘單’(乙4680反)	‘獸’(京津4410)	‘單’(簠人14)	‘獸’(甲3599)	‘獸’(鐵36·3)

이 중 ④B·C에서와 같이 ‘㉹’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각형이나 마름모 형태로 변화된 것은 갑골의 서사 도구적 특성상 ④A와 같은 완전한 원형 필획을 구현하기가

23) 동일한 계통의 이체 자형들은 모두 하나의 ‘字族’에 속하는, 이 字族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구성원 각각은 개별적 ‘字位’의 지위를 가진다.

상대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쓰기 용이한 것으로 변화시킨 서사편의 추구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④D·E에서의 ‘ㄱ’·‘ㄴ’은 ‘ㄷ’이 편방으로 쓰이면서 간략화 된 형체로서, 문자 서사 환경적 요인에 의한 극단적인 간략화의 결과이다. 또한 서사편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ㄷ’ 중의 면(◦)이 점(•)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생략되는 형체 변화 역시 동반되었다. 따라서 ④D·E 중의 ‘ㄱ’·‘ㄴ’은 모두 ‘ㄷ’ 중 ‘◦’이 간략화 됨으로써 발생한 이체 자형들이다.

또한, ‘ㄷ’의 하단 또는 ‘ㄷ’ 중간에 ‘◦’은 아래 표와 같이 ‘ㄷ’(⑤B)·‘ㄷ’(⑤C)·‘-’(⑤D) 등의 형체로 구현되거나, 일부의 문자에서는 생략되기도 하였다(⑤E).

⑤	A	B	C	D	E
ㄷ					
	‘單’(甲2772)	‘單’(粹73)	‘單’(簠人14)	‘單’(乙1049)	‘獸’(鐵36·3)

‘◦’은 ‘뭉다’ 등의 의미와 관련한 부호이기 때문에 원래 ⑤A에서와 같이 원형에 가까운 형체가 본래의 형체일 것이다.²⁴⁾ 그런데 곡선의 ‘◦’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필획에 비해 서사상 상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서사편의를 추구함으로써 ‘ㄷ’과 같이 평직화 되어 일정한 각이 있는 사각형 형태로 변화되었다.²⁵⁾ ‘ㄷ’ 역시 ‘ㄷ’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요인에 의한 형체 변화의 결과이다. 다만 가로획 하나가 추가되어 ‘ㄷ’에 비해 필획 수가 증가하는 변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빈 공간을 일정한 부호로 채워 시각적 안정감과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서사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예를 다른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⁶⁾ ⑤D·⑤E는 각각 ‘◦’이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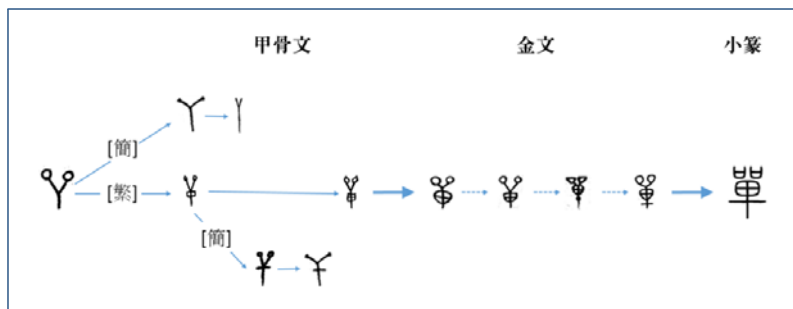
24) 고대 한자에서는 ‘◦’과 같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부호로써 ‘뭉다’ 혹은 ‘둥글게 두르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빈번하다. 가령 둥근 형태의 佩玉을 나타낸 ‘黃’이 ‘두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𠂇’(林1·9·5)으로 쓰거나, 대나무 조각을 ‘뭉은’ 죽간의 형상을 나타낸 ‘冊’이 ‘冊’(甲1560)의 자형을 취한 것, 또 여러 개의 대롱을 한데 묶어 ‘엮은’ 관악기인 ‘龠’이 ‘龠’(存下611)의 형체를 띠는 것 등에서의 해당 필획이 바로 그 예이다.

25) ‘龠’의 갑골문 ‘龠’(存下611)이 ‘龠’(前5·19·4)와 같은 형체로 쓴 것도 이 예에 속한다.

26) ‘黃’의 갑골문 ‘黃’(前1·52·3)을 ‘黃’(京津637)으로 쓰거나, ‘晶(星)’의 갑골문 ‘晶’(後下9·1)을 ‘晶’(佚506)으로 쓴 것 등이 이와 관련한 예이다.

대폭 간략화 되거나 아예 생략된 경우이다. 그 원인은 전술의 ④D·④E와 마찬가지로 서사편의 추구의 심리적 요인과 서사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이다.

전술의 ‘ㄷ’과 ‘ㄷ’의 다양한 이체 자형 발생에 따른 ‘單’의 형체 변화 과정을 ‘單’의 대표적 이체 자형들로서 간단히 도시해보면 아래와 같다.²⁷⁾



‘單’은 갑골문 중의 간략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형체 변화는 전반적으로 변화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單’이 형체 변화 과정 중 ‘干’과 유사하게 변화됨에 따라²⁸⁾ 이 문자와의 혼동을 피해 변잡한 형체를 채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래 사냥들을 상형한 ‘單’은 서사편의와 의미 변별의 추구라는 문자 형체 변화 및 사용상의 양대 규율이 유기적으로 적용되어 간략화와 변화의 과정을 거쳐 변화해 온 문자인 것이다.

VI. 사냥들 기원설의 적용

‘單’의 ‘사냥들 기원설’은 ‘單’과 형체·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다른 문자의 형




27) 금문은 각각 〈單伯鐘〉·〈小臣單觶〉·〈單媾誥戈〉·〈王盃〉 중의 문자이다.

28) 방패를 상형한 ‘單(干)’은 ‘𠄎’과 ‘𠄎’으로(李孝定이 가상으로 설정한 형체) 변화하였고, 이것은 다시 ‘ㄷ’ → ‘ㄷ’ → ‘ㄷ’의 간략화 과정을 거쳤다(李孝定1970a:0683~0686). 이 중 특히 ‘ㄷ’은 ①D와 ③C 중 ‘單’의 형체와 유사하다. 이러한 형체 변화 결과는 단독의 ‘單’ 또는 편방으로 쓰인 ‘單’의 일부 자형과의 혼동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單’은 필획의 변화를 통해 ‘干’과의 형체 변별을 추구한 것이다.

체 기원 탐구에 일정한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單’ 등의 문자에 반영된 사냥돌 관련 문화 기술을 통해 중국 고대 사냥문화 연구에 유의미한 단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청동기 族徽와 같은 중국의 그림문자 연구와 갑골문·금문 등 고대 한자 연구, 그리고 고대 사냥문화 연구 등 세 측면에 ‘사냥돌 기원설’을 적용해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거나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견해들을 제시해 보았다.

1. 갑골문 형체 기원 연구 측면

문자들 간의 형체적 유사성은 이들 문자들이 동일 기원을 가질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서이다. 따라서 형체 기원을 밝히는 과정에서는 먼저 유사한 형체가 다른 문자에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에서 사냥돌을 상형한 ‘單’의 갑골문 ‘𠄎’이 ‘𠄎’과 ‘𠄎’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이중 ‘𠄎’은 사냥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속성을 나타낸 핵심형체임을 살펴보았다. 갑골문 중에서는 ‘𠄎’과 형체가 매우 유사하여 그 형체가 사냥돌에서 기원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문자가 있는데, 바로 ‘冬’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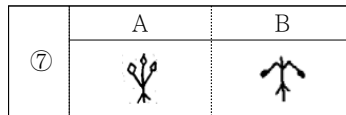
⑥	A	B	C
冬	 (庫664)	 (菁3)	 (乙368)

갑골문 ‘冬’에 대해서는 ‘유실수의 열매’(葉玉森 1931, 董作賓 1933)³⁰⁾, ‘줄의 끝 부분에 묶인 매듭’의 상형으로 보는 등 이설이 분분하다. 이 중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는 유실수의 열매로 보는 설이다. 예를 들어 葉玉森은 마치 나뭇가지 위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린 아래의 갑골문 ⑦A의 형체에 착안하여 ‘冬’이 이와 유사한 열매에서 유래한 것이라 여겼다. 그렇지만 ⑦A는 열매가 맺힌 가지가 ‘𠄎’의

29) ⑥A 등은 ‘夂’으로 隸定하는 것이 옳겠으나, ‘夂’는 발을 상형한 ‘夂’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冬’으로 표기하였다.

30) 于省吾(1996)에서 재인용.

형체로서, 앞 ⑥A 중 ‘^’형 필획과 필획 수 및 방향이 모두 상이하고 ‘열매’의 수량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⑦A는 ⑥A와 근본적으로 다른 형체이다.³¹⁾



葉玉森과는 달리 董作賓은 ⑦B의 형체가 ⑥A와 유사하다 여겨 ‘冬’의 형체는 ⑦B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冬’을 ⑦B의 생략된 형체(즉 ‘省文’)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⑦B가 세모에 가까운 둥근 면의 필획을 포함하고 있고, 무엇보다 ‘^’형의 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⑦B는 ‘^’의 좌·우 하단 양 끝에 ‘o’가 부가된 형태여서 ‘^’ 아래에 ‘o’가 부가된 ‘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董作賓은 또한 ⑦B의 형체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략하였는지에 관하여 문자 형체 변화·발전에 관한 일반적 법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설명을 한 바 없다. 따라서 그가 葉玉森에 비해 보다 유사한 형체의 문자에 근거하여 ‘冬’의 형체 기원의 단서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의 설은 근본적으로 葉玉森과 대동소이하다.

앞의 두 설이 근거로 삼은 갑골문의 형체는 모두 ‘V’의 핵심형체인 ‘V’과 갑골문 ‘冬’ 간의 형체적 유사성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크게 못 미친다. ‘V’은 갑골문 ‘冬’의 각종 형체와 방향의 차이만 제외하고는 형체적으로 확연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冬’의 형체가 사냥돌에서 기원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고대한자에서는 문자의 방향을 달리하는 ‘변형지사법’³²⁾을 운용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다. 갑골문 ‘冬’ 역시 ‘V’의 조자본의와는 다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줄에 묶인 돌이 위로 향한 ‘V’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변화시킨 변형지사 운용의 결과이다. 즉 원래 ‘V’형인 ‘V’의 방향을 ‘^’형

31) ⑦A는 ‘葉’의 初文으로 보는 설(郭沫若《卜辭通纂》, 于省吾(1996)에서 재인용)이 오히려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2) 鄭廷植(1997:101)은 이를 ‘省變體指事’로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문자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방향 및 위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존 문자의 의미와 일정 정도 관련성을 가지는 별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자법을 가리킨다.

으로 변형한 것이 ‘ㄱ’(㉞A)으로서, ‘ㄱ’이 투척 직전 돌의 원심력에 의해 앞으로 뺀
은 사냥돌의 형상으로써 사냥돌의 주요 기능인 사냥 중 투척에 의한 ‘포획’이란 의
미를 나타내기 위한 문자라 한다면, ㉞A는 사냥이 ‘종료’된 후 벽이나 기타의 장소
에 걸려 줄에 묶인 두 돌이 중력에 의해 아래를 향해 늘어뜨려진 사냥돌의 형태를
통해 사냥의 ‘종료’라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이다. 그러므로 ‘冬’은 ‘ㄱ’과 마찬
가지로 사냥돌이라는 동일 사물을 형상화 한 문자이며, 특정 상태에 처해 있는 사
냥돌의 모습을 통해 ‘ㄱ’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 문자인 것이다. 복사 중에서 ‘冬’이
‘종료’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 것도 바로 ‘ㄱ’의 변형지사를 통해 ‘종료’의 의미를 나타
내고자 하였던 ‘冬’의 조자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冬’이 사냥돌에서 기원하였을 개연성은 ‘종료’의 의미를 전문적으로 나타내기 위
해 출현한 ‘終’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糸’를 의부로 취한 ‘終’에 대해 일각에서는
‘冬’이 줄의 끝부분을 묶은 結繩의 매듭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끈의 속성을 표시하
기 위한 ‘糸’를 의부로 취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설에서는 結繩이
商代에도 여전히 널리 사용된 記事 방식 중 하나였는지, 또 당시 사람들의 실제 일
상생활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종료’의 의미 표시에 있어 왜 굳이
줄의 매듭을 이용하였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고·문화학 측면의 명확한 근거
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갑골문 ‘冬’의 형체 기원을 막연히 줄 끝의 매
듭에서 찾는 것보다는, 그리고 앞서 살펴본 유실수의 열매에서 기원하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고대 중국인들의 생산 활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고³³⁾ 또
관련 실물이 존재하는 생산도구로서의 사냥구에 착안하여 ‘冬’의 형체 기원을 밝히
는 것이 고대 문화 연구 성과와 실증 자료 등의 유력한 증거의 토대 위에서 오히려
더 큰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3) 白川靜(2003)은 갑골문이 점복의 기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다수의 갑골문을 주술과
제사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고대의 표의 계열 문자 대부분이 인간의
일상생활 및 생산 활동 등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卜辭 중의 갑골문도 예
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중국인들의 일상과 좀 더 큰 관련이 있는
문화요소를 고대 한자 형체 기원 탐구의 주된 논거로 삼았다.

2. 청동기 族徽의 形·義 분석 측면

문자 발전사상 前문자³⁴⁾ 단계에 속하는 그림문자는³⁵⁾ 초기 문자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대 문자의 형태 기원 연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한자의 생성·발전 과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문자로는 청동기 族徽가 있다. 여기에는 갑골문·금문 등 고대한자의 형태 기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단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휘 중 상당수는 형태와 의미에 대한 규명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자 형태 기원 연구에 있어 소중한 문자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單’의 ‘사냥돌 기원설’은 적어도 사냥돌과 관련한 부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족휘의 形·의 본연의 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 갑골문·금문의 형태 기원 연구에 있어 문자 자료로서의 가치를 일정 정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냥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족휘로는 다음 ⑧A·B·C·D가 있다. 《金文編》에서는 ⑧A·B·C·D를 특정 문자로 확정하지 못하고 〈附錄〉(第418條·第419條)에 편입하고 있는데, 이들 족휘들의 形·의 분석은 관련 문자들의 형태 기원 연구에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 족휘들의 字條 편입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냥돌 기원설’에 근거해 이들 족휘의 形·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A	B	C	D
⑧				
	(罍文)	(己觚)	(卣文)	(父丁簋)

34) 문자의 생성·발전 단계는 크게 非문자·前문자·문자 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前문자는 非문자와 문자 단계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고정된 발음과 의미가 있어 그 기능은 문자와 거의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림에 가까운 부호들을 일컫는다.

35) 그림문자는 ‘圖畫文字’라 칭하기도 한다. 중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이에 해당하는 부호를 ‘文字畫’라 칭하고 있지만, 圖畫文字와 文字畫는 일반적인 조어구조상 피수식어(‘中心語’)가 각각 ‘文字’와 ‘畫’이므로 그림 형식의 ‘문자’는 圖畫文字, 그리고 문자의 표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그림’은 文字畫로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먼저 ⑧A는 ‘ㄱ’과 ‘ㄴ’로 구성된 부호이다. 이중 ‘ㄱ’은 갑골문 ①A와 ②A 중 ‘單’의 형체와 완전히 동일하고, ①A·B·C와 ③A 중 ‘ㄷ’·‘ㄹ’·‘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도 높은 형체적 유사성을 띠고 있어서, 이 역시 사냥들을 상형한 부호임을 알 수 있다. ⑧A에서는 또한 ‘ㄴ’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골문 ㄴ(前7·17·1)·‘ㄴ’(京津1883) 등과 마찬가지로 새의 등지를 상형한³⁶⁾ 부호로서³⁷⁾, ‘ㄱ’의 사용대상이 새임을 나타낸 것으로, 표의 기능 측면에서 ③A·B·C·D·E에서 사냥들을 제외한 ‘ㄱ’, 그리고 ‘獸’의 이체자들이 취하고 있는 각종 동물들을 나타낸 부호와 동일한 지위를 진다. 따라서 ⑧A 중 ‘ㄱ’에 ‘ㄴ’을 추가한 것은 사냥들의 사용대상이 ‘獸’와는 달리 날짐승이 ‘ㄱ’의 사용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한 조자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⑧A를 구성하는 ‘ㄱ’과 ‘ㄴ’의 표의 관계 분석과 ‘獸’의 형체 구성 요소와의 비교에 따르면, ⑧A는 곧 사냥들을 사용한 날짐승의 포획을 의미하는 부호인 것이다.

⑧B는 ⑧A와 달리 ‘ㄱ’ 대신에 ‘ㄴ’을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냥들을 이용한 날짐승의 포획을 의미하는 ⑧A와 동일한 부호이다. 왜냐하면 Y형 필획 상단이 ‘ㅇ’ 대신 ‘ㅇ’이고, 또 Y형 필획 중간에 ‘ㅇ’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호 전체의 윤곽과 결합 구조는 ⑧A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ㅇ’이 ‘ㅇ’로 변화된 사례는 ③C(獸)에서도 볼 수 있으며 다른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또 Y형 필획 중간의 ‘ㅇ’은 ‘單’의 여러 갑골문에서 ‘끈을 묶다’ 등의 의미 표시에 쓰인 ‘ㅇ’이 이와 같이 변한 것으로, 이는 ‘ㅇ’이 ‘ㅇ’로 변한 것과 동일한 형체 변화의 예이다.

⑧C 역시 ⑧A·B와 동일한 의미의 부호이다. 다만 ‘ㄱ’과 ‘ㄴ’ 이외에도 ‘ㄷ’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사냥들을 사용하는 대상이 날짐승이라는 점을 ‘ㄱ’ 이외에도 새를 상형한 ‘ㄷ’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⑧A·B·C의³⁸⁾ 변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⑧D는 ㄴ³⁹⁾ 안에 ‘ㄱ’과 ‘ㄴ’이 상하로 결합된 ‘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ㄱ’ 역

36) 이러한 점은 새를 나타낸 부호를 포함한 ⑧C·D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37) ‘西’는 새가 깃들이는 등지의 형상을 통해 ‘棲息’의 의미를 나타내는 ‘棲’의 원래 글자이다.

38) ⑧A·B는 새를 상형한 부호가 생략되어 있어서 ⑧C의 간략화 된 형체라 할 수 있다. 이는 ‘ㄴ’만으로도 이들 문자들이 새와 관련한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39) ‘亞’로 고석하기도 한다. 정확한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집트 聖刻文字

시 앞의 ⑧A·B·C와 동일한 의미의 부호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비록 ⑧D는 ‘𠄎’·‘𠄎’·‘𠄎’ 등 대신에 ‘𠄎’만을 취하고 있지만, ‘𠄎’·‘𠄎’·‘𠄎’와 ‘𠄎’는 ‘새’라는 공통의 의미자질을 표시하는 부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를 취한 ⑧A·B·C와 ⑧D는 이체의 관계만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⑧D는 ‘𠄎’을 취하고 있다. 이 ‘𠄎’은 ⑧A와 ⑧B·C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앞 ①D·③C와 유사하고, 또 접이 짧은 가로획으로 필획이 변하는 예는 고대 한자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𠄎’의 이러한 형체 변화는 ‘𠄎’과 같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해당 자형을 구현해야 하는 서사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𠄎’는 곧 ⑧A와 ⑧B·C 중 ‘𠄎’·‘𠄎’의 간화 형체로서 역시 사냥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 ⑧A·B·C·D의 형체와 각 부호 간 결합에 따른 표의 관계에 근거하면, 이들 족휘는 후에 출현한 ‘禽’의 초기 형체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⑧D와 동일한 결합 구조로서 이와 이체 관계를 형성하는 족휘 ⑨A 중의 ‘𠄎’이 갑골문 ‘禽’(⑨B·C)와 매우 높은 형체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또 ‘禽’이 ‘포획’이라는 의미(擒)로 자주 쓰였던 각종 문헌상 용례들은 ⑧A·B·C·D가 ‘禽’과 형체·의미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⑧A·B·C·D 등의 족휘들은 ‘禽’으로 고석할 수 있으며, 이에 이들을 ‘禽’字條에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A	B	C
⑨			
	(辛□罍)	禽(鐵134·3)	禽(戩1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족휘 중 ‘𠄎’·‘𠄎’·‘𠄎’ 등은 모두 사냥들을 상형한 부호로서, 이 부호들을 포함하는 족휘는 모두 사냥들을 사용한 사냥이라는 의미 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앞의 족휘들의 형·의 분석 및 字條 편입 문제뿐만 아니라, ‘𠄎’·‘𠄎’·‘𠄎’ 등을 포함하는 다른 고대한자의 형체 기원 연구에도 일정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Hieroglyph) 중 ‘𠄎’과 같이 왕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에 두르는 타원형의 카르투슈(cartouche)와 같이 神性이나 권위가 있는 존재를 표시하기 위한 부호로 추정된다.

3. 고대 중국의 사냥문화 기술 측면

한자는 중국 고대 문화기억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한자에는 특히 고대 중국의 각종 생산 활동과 관련한 문화기억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어서, 고대한자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 내재하는 고대 중국의 생산 활동과 관련한 문화기억의 복원과 이에 근거한 해당 문화요소 기술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⁴⁰⁾

본고의 ‘사냥돌 기원설’은 고대 중국의 생산 활동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냥문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냥돌 관련 문화요소의 기술을 가능케 한다.

첫째, 고대 중국에서는 실제로 사냥돌이 널리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고 발굴된 실물 자료와 암각화와 같은 비서사성 자료, 그리고 민족지 등을 통해서도 고대 중국에서의 사냥돌의 존재와 사용을 짐작해 볼 수 있지만(蘇北海 1989), ‘單’의 사냥돌 기원설은 고대한자의 형·의 기원 탐구에 따른 성과들로서 그와 같은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해주고 있다.

둘째,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사냥돌은 ‘한줄식’·‘두줄연결식’·‘보조끈 연결식’ 등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족지나 실제 발굴된 사냥돌에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냥돌은 돌을 묶은 줄의 수량에 따라 ‘한줄식’·‘두줄식’·‘세줄식’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耀西·兆麟 1977). 그런데, 본고의 ‘單’에 대한 형체 분석 중 ‘Y’의 핵심형체인 ‘V’와 갑골문 ①A·B의 형체에 근거하면 商代에는 두 개의 돌이 하나의 줄 양쪽에 묶인 ‘한줄식’과, 한쪽에 돌을 묶은 줄 두 가닥을 연결한 ‘두줄연결식’, 그리고 이 형식에 기초하여 보조 끈(‘J’)을 추가로 연결한 ‘보조끈 연결식’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 四川의 일부 지역과 남미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세줄식’ 사냥돌의 사용 여부는 고대 한자를 통해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사냥돌은 후대에 출현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무기 및 무술도구의 기원이 된다. 인류의 생산 활동의 다양화와 각종 사냥구의 발전으로 인해 사냥이라는 사냥

40) 한자 중에는 조자 당시에는 이미 보편적이지 않은 훨씬 이전 시기의 문화요소를 반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문자의 약정속성 때문에 여전히 그 흔적이 문자 중에 남아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문자 중에 어떤 문화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해서 그것이 문자가 사용되는 시점의 가장 전형적인 문화요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돌의 원래 용도가 후대에까지 온전히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사냥돌의 기본적 형태·속성·용도를 근간으로 하는 무기 및 무술도구는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용되었다(儀明浩·高星·裴樹文 2012). 清代의 ‘流星錘’(그림3)는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가격용 또는 제압용 무기 또는 무술 도구로서, 투척을 통해 상대의 움직임을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는 사냥돌의 전승과 변용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의 형태나 운용 방식 및 속성이 실물의 사냥돌과 거의 일치하고, 또 ‘單’ 관련 문자들의 형체·의미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사냥돌은 점차 생산도구라는 애초의 속성이 변화하여 비생계적 도구가 되었다 하더라도⁴¹⁾, 기본적인 형태와 속성은 각종 무술도구와 무기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부단히 후대로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⁴²⁾



〈그림3〉 사냥돌과 유사한 형태의 ‘流星錘’⁴³⁾

전술과 같이 ‘單’의 ‘사냥돌 기원설’은 ‘單’의 형체 기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사냥돌 사냥문화,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고대 생산 활동과 관련한 문화요소의 발굴과 기술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단서들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⁴⁴⁾

41) 陳漢有·楊作龍(1999)은 사냥돌이 청동기 시대 이후에는 사냥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대의 여러 지역에서 사냥돌이 여전히 사냥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밝혀진 바 있어 이들의 설은 타당치 않다.

42) 사냥돌은 변용·전승 과정에서 형태·구조·재질 등의 변화를 통해 무기(李放 1991)·체육기구(陳漢有·楊作龍 1999)·놀이도구(袁合 1993)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43) 출처 : www.flight-toys.com/bolas.htm

44) ‘單’의 사냥돌 기원설은 이밖에도 ‘單’을 포함하는 문자의 의미자질 분석에 있어 보완의 작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姚孝遂(1981)는 복사에 등장하는 사냥 관련 각종 문자 중 ‘獸’에 대해서 ‘몰이사냥(즉 圍獵)’의 어떤 형식으로만 여겼다. 그렇지만 앞의 관련 분석을 통해 볼 때 ‘獸’는 ‘몰이사냥’이라는 의미 표시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냥돌

VII. 結語

사냥들은 선사시대부터 오랜 세월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사냥구이다. 이것은 생산 활동으로서의 사냥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유희 등 여러 분야에서 전승·변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냥들의 원형에 관한 문화 흔적은 중국 고대한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문자·문화 연구에서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갑골문 '單'에서 사냥들과 관련한 문자·고고·문화적 단서를 참조하여 '單'의 형체가 사냥들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라 추정된 '사냥들 기원설'을 제기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또한 '單'의 '사냥들 기원설'에 근거하여 사냥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갑골문 '冬'과 몇몇 족휘의 형체 및 의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일정의 단서를 제시해 보았고, 또 이를 토대로 사냥들과 관련한 고대 중국의 사냥문화의 일면을 기술해보았다.

본고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單'의 형체 기원에 관한 하나의 가설이다. 그러나 '干'과 '單' 간의 음운적 유사성에 치중하거나 단순히 형체적으로 '干'과 유사하다는 것에만 근거함으로써 '單'의 형체 기원에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원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문자 및 문화 관련 분야에 일정의 참고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물 및 문헌 자료의 부족은 본고 내용의 객관성 및 실증성 확보에 있어 현실적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문자·문헌·문화 등 여러 관련 분야의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굴,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부단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광언 《韓·日·시베리아의 사냥 : 狩獵文化 比較誌》, 민속원, 서울, 2007.
 羅振玉 《殷墟書契考釋》, 王國維手寫石印本, 1915.
 馬如三 《殷墟甲骨文引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長春, 1993.

을 사용한 '포획'에 표의 중점을 둔 문자임을 알 수 있다.

- 白玉崢〈契文舉例校讀〉,《中國文字》第8卷 第34冊,國立臺灣大學 文學院 中國文學系,1969.
- 白川靜《漢字百話》,中央公論新社,2003.
- 徐中舒《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0年 第4期.
- 徐中舒《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1989.
- 蘇北海〈從溫宿縣天山岩畫看古代牧民的游獵生活〉,《干旱區地理》,1989年 第1期.
- 孫海波《甲骨文編》,大化書局,1982.
- 安家媛〈遠古人類的狩獵方式〉,《化石》1991年 第2期.
- 楊樹達《積微居甲文說》,上海古籍出版社,1986.
- 吳其昌《殷墟書契解詁》,藝文印書館,1960.
- 王霄冰〈文化記憶角度下的文字與儀式〉,《文字、儀式與文化記憶》,民族出版社,北京,2007.
- 王爲桐〈對石球考証之啓迪〉,《齊魯珠壇》,1996年 第5期.
- 耀西·兆麟〈石球——古老的狩獵工具〉,《化石》1977年 第3期.
- 姚孝遂〈甲骨刻辭狩獵考〉,《古文字研究》第6輯,中華書局,1981.
- 姚孝遂《殷墟甲骨刻辭類纂》,中華書局,1989.
- 于省吾《甲骨文字詁林》,中華書局,1996.
- 袁 合〈論石球由狩獵工具到遊戲器具的嬗變〉,《體育文史》1993年 第2期.
- 俞偉超〈中國古代公社組織的考察——論先秦兩漢的“單一彈一彈”〉,《中國歷史博物館叢書》,文物出版社,1988.
- 儀明浩·高星·裴樹文〈石球的定義、分類與功能淺析〉,《人類學學報》2012年 第4期.
- 李 放〈試論兵器的形成〉,《江西文物》,1991年 第1期.
- 李孝定《甲骨文字集釋》第3卷,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1970a.
- 李孝定《甲骨文字集釋》第2卷,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1970b.
- 陳哲英〈石球的再研究〉,《文物世界》,2008年 第1期.
- 陳漢有·楊作龍〈黃河流域古代石球研究〉,《洛陽師專學報》1999年 第2期.
- 崔風祥〈賀蘭山巖畫與古代狩獵文化〉,《武漢體育學院學報》2005年 第4期.
- 崔風祥·崔星〈狩獵巖畫與原始體育文化〉,《民族學與人類學》2009年 第5期.
- Cecilia Lindqvist 《한자왕국》, 김하림·하영삼 譯, 청년사, 2002.
- M.S.Garbarino 〈문화인류학의 역사〉, 한경구·임봉길 譯, 일조각, 1997.

【中文提要】

這篇小論文的主要目的是推究甲骨文、金文等古代漢字裏所見的“單”字的形體來源。以前對“單”字的研究當中，有些研究者主張了“單”的形體來源於祭壇、聚落、帶型臘具等說法，迄今仍然諸說紛紜。因此本文參考既往的對“單”字的一些研究成果，還參照中國古代狩獵文化的方方面面，其中特別注意到古代人類常用的一種狩獵工具——石球，而提出有關“單”字形體的一個假設。石球是包括中國、韓國等東北亞地區，也包括南北美等地，生活在差不多世界所有地區的古代人類普遍使用過的狩獵工具之一。它的形體與使用方法為研究“單”的形體來源與造字本義方面提供值得參考的線索。對此本文在漢字形義學、結構論等有關語言文字學理論和偏旁分析法、核心形體分析法等研究方法論的基礎上，就研究“單”字的形體結構和字義是否與石球的形體和屬性、使用方法有關係，最後總結出“單”是石球的象形字的結論。本文的研究還只不過是一種假設，但給研究“單”字的形體由來研究方面予以提供一定的參考價值。

【主題語】

甲骨文(Oracle Bone Script), 사냥돌(Bola Stone), 族徽(Family Emblem),
單(dān), 擲(dǎn), 獸(shòu)

투고일: 2014. 10. 15 / 심사일: 2014.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4. 11. 10